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자기 백성의 상처

성경: 사30:18-26

Tag:

18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9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풀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20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21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22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23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4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25 크게 살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2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사30:18-26)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는 말씀이 나온다.

-자기 백성의 상처는 싸매신다.

-자비가 크시고 긍휼이 크시니 다른 백성의 상처도 싸매실 것이나, 아무래도 자기 백성의 상처는 더 애뜻하게 싸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 30장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진노와 심판이야 자기 백성들에게도 예외는 없지만(정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래도 더 세밀한 정상참작+혈육지정이 작용한다.

-소위 우리와 하나님간에 ‘우리가 남이가’ 정서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이런 ‘우리가 남이가’ 정서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통성명하고, 가끔 가다 하나님께 인사하고...(이건 좀 부족함) 서로간에 대화(기도)하고, 뭔가 거래를 하고, 토론이나 언쟁이라도 하고, 서로 이해하고(이해하고 오해가 뒤섞이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튼 서로 뭔가를 주고 받은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9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들은 심판을 면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이들이 심판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곁에서 너무 고소하게 여기면 곤란하다. 바람직한 자세는 겸손하며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구함이 마땅하다.)

-9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남이가’ 정서는 순종하는 자녀에게서,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자녀에게서, 여호와와 법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 대하듯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실례가 되지 않겠는가?

아무튼 이사야 30장 전후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그 중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18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  
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시신다.

-누구를:백성을. 백성이 무엇하기를? 9절 말씀에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가끔 하나님의 백성도 패역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백성들은 옛날을 그리워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행복했던 그 날들을 추억한다.

-세속적인 관심사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 날들을 추억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아파트니, 주식이니, 역세권이니, 부동산이니, 상권이니 그런 말들에 귀가 솔깃 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언제나 부자가 될거냐구. 다들 부자가 되는거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보통 서민들이 더 많다. 지금은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서구의 어느 나라 보다 우리는 지금 현재 풍성하고 자유롭고 행복하다.

-과거를 추억하며, 더 부자될 수 있는데도 포기하자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더 멋진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다. 우리 아버지 아니신가?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을 먼저 회복하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왜냐면 그래야 막혔던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예배당에서 부르짖을 때이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을 때이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렇게 베풀어진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가? 패역한 백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거짓말에 눈 돌아가는 자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다.

-만약 가난해야 부르짖을 것 같으면 차라리 가난하게 해서라도 부르짖게 하고 싶으신게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다. 얼마든지 더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대저 여호와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대저;대체로, 여전히, 항상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숙하신 아버지, 자녀 기르시기에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자녀의 뺨에 이리 저리 끌려 다니시는 분은 아니시다.

-준엄하시나 인자하시고, 정의로우시나 인정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다.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19절 말씀에 답이 있다.

19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시온과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와 예배당을 상징하는 단어다.

-왜냐면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기다리는 백성에게 응답하신다.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통곡이란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슬피하며 울부짖는 것을 말한다. 마치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통곡한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에 통곡할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원한다.(한번으로 족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통곡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그러나 통곡하는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내가 너에게 응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부르짖으며 기다릴 것이다.

### 19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왜 꼭 부르짖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영혼만 있는게 아니라,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절실함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목청도 있기 때문이다.

-우렁찬 목청은 싸우거나 노래할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필요한 기능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속삭이듯이 말해도 다 들으신다고 말한다.

-그 사람은 거기까지 밖에 모르는 듯해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말해도 다 들으신다.

-오직 부르짖는 기도만이 완전한 기도라는 뜻도 아니다. 말 없이 행동으로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심령, 그 안타까움, 그 다급함과 절실함을 오직 하나님만은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심령이 통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신 것이다.

### 20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인생은 천차만별인데, 모두들 자기 고생만 알지 남의 고생에는 큰 관심이 없다.

-어쩌다 알려지면 충격을 받는다. 며칠 전 친구 목사가 자신의 투병 생활에 대해 말해 주는데, 나는 감히 명함을 내밀지 못했다.

-그에 비하면 나는 선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뺨속까지 양반의 피가 흐르고 있는 목사가 가끔 땀이 비오듯하며

막노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문득, 인생 참 아이러니구나 할 때가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인생에게는 자마다의 애환이 있다.

-하나님은 한가지 방책을 주셨는데, 다시는 네 스승을 숨기지 아니 하시리라는 약속이었다.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다; 너는 항상 네 눈 앞에서 스승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복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한데, 이런 복이 모든 민족에게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기독교가 왕성한 국가일수록 이런 복은 뚜렷하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스승을 마주하고 살아간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고, 심지어 교수는 학생에게서 스승을 발견하고, 목사는 교인에게서 스승을 발견하고, 어머니는 아들에게서 스승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구체적으로는 암송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난다.

21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21절 말씀의 경지에 이른 성도들은 복된 성도들이다. 우리 모두 사모할 성도의 모습이다.

22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  
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  
라 하리라

-중요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요하는 것을 같이 중요하는 백성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중요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너그러워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자들은 22절 말씀의 뜻을 다시 되새겨야 할 것이다.

25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25절 말씀은 결국 큰 재앙의 날, 큰 살육의 날이 이를 것이다.

-사람들의 패역은 결국 멸망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마도 이 구절은 난해한 구절인데,(중국의 산샤담 생각이 난다.)

2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  
의 빛과 같으리라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북한에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실 것이다.

-그들의 고난을 끝낼 것이다.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실 것이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다. 이것이 백성을 도우시는 이유시다.

-이토록 전쟁과 광풍이 휘몰아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와 그 인애와 자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기독교인이면서 세속에 눈멀어 재앙 앞에서 허둥대는 모습은 최대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보여서는 않된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자신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Tag:

9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롬 1:9)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5:17)

- 기도는 영혼의 호흡.
-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자.
- 습관적이 것 중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자.
-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행위
-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초청하는 것
- 기도는 내 영혼의 골방, 안식처가 된다.
- 기도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시는 것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 기도는 열쇠다. 풀리지 않을 때의 기도는 풀리는 힘을 준다.
- 기도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다.
- 기도는 마법이 아니다. 기도는 대화이며, 답이기 보다는 협력이다.
- 그러므로 답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설득이고, 어쩌면 강요고, 억지고, 여론조작이다.

